권두시론

뉴스룸 '세대갈등'과 '정명석 변호사'



김영희 |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

-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 한겨레신문 국제부·사회부·문화부 기자
  국제부장·문화부장·사회에디터
  논설위원
  편집국 총괄부국장
- 관훈클럽 66대 편집위원

최근 몇 년 새 한국 정치와 사회의 갈등을 바라보는 주요 프레임이 된 '세대론'이 언론사 뉴스룸에도 도착했다. 비슷한 연조의 기자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그들 세대만의' 불평과 불만을 나누는 일이야 흔하지만, 최근 움직임은 뉴스룸 내 세대갈등이라는 이슈가 공개적 장에서 공식화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해 11월 '민주화 세대의 퇴장, 언론노동 현장의 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올해는 선후배 세대 기자들이 패널로 나와 속내를 털어놓는 '뉴스룸 세대갈등 토크쇼'를 유튜브에 순차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미디어전문지《신문과 방송》 9월호가 이 주제를 집중점검했고, 원인과 해법을 진단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연구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는 뉴스룸 세대갈등이 개별 언론사를 넘어선 보편적 현상이며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는 방증일 것이다. 한편으론 한국 언론사의 오래

된 조직문화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선배 정명석 변호사가 좋은 상사의 이상형으로 꼽히는 시대, 그 한계는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뉴욕타임스 세대충돌이 의미한 것

사실 세대 간의 격렬한 충돌은 서구 미디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2010년대 후반 이후 겪고 있는 변화가 대표적 사례다. 2018년 뉴욕타임스 구성원들이 회사 내부 메신저앱인 슬랙에서 자사의 보수성향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2명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대화가 허핑턴포스트에 유출된 사건은 큰 화제가 됐다. 회사 내부 커뮤니케이션 유출은 170년 역사 뉴욕타임스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기에 "저널리즘의 이 특별한 순간이 결국 문화충돌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평가(리디아 폴그린, 허핑턴포스트 편집장)가 나왔다.

이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2020년 6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에 군을 투입하자는 톰 코튼 상원의원 기고의 디지털 게재를 둘러싼 논란은 논설실과 편집국이 철저히 간섭하지 않는다는 강고한 전통마저 무너뜨렸다. 800여 구성원이 트위터에서 집단 항의를 벌이며 기고의 지면 게재는 취소되고 제임스 베넷 논설실장이 사퇴했다. 보수성향의 칼럼니스트 배리 와이스가 공개 사직서를 던진 뒤 이 사건을 "과격한 대부분의 젊은 기자들과 40대 이상 자유주의자들의 내전"이라고 트위터에 쓴 것은 거센 논란이 됐다.

물론 사태의 본질은 코튼 의원의 기고 내용 자체가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는 반박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까지 이어진 데는 구성원의 다양성 증가가 일조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뉴욕타임스 내 22~37세 밀레니얼세대는 2012년 20%에서 2019년 49%로 늘었다. (『뉴욕타임스의 디지털 혁명』, 송의달) 여성 비율은 2018년부터 남성을 앞섰고, 흑인

등 유색인종은 2015년 27%에서 2020년 33%로 늘었다. 이념적으로 윗세대보다 더 급진적이며 인종이나 성소수자 문제에 훨씬 예민한 감성을 지닌 구성원 증가가 논조를 움직이게 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한국의 뉴스룸 세대갈등을 주목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느 직장에서나 있을 수 있는 구성원 간 세대 차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보도 아이템과 논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재환경·기자관·이슈 가치 모든 게 변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이나 조국 사태 보도 등을 둘러싸고 한겨레를 비롯한 몇몇 언론사에서 나타났던 집단적 의사표명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세대 문제가 지목됐다. 다만 이것이 진짜 세대 문제인지, 또 언론계 전체에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선 변변한 기초조사조차 없다. 최근 몇 년 새 이런저런 활동을 통해 언론계 후배 세대를 만나며 느꼈던 점과 언론노조의 토론회와 토크쇼를 바탕으로 현상과 원인 몇 가지를 짚어본다.

먼저 디지털 시대 소통의 변화, 취재환경의 변화를 세대갈등과 빼놓고 생각할 순 없다. 선배 세대는 기사 내용을 두고 때로는 '멱살까지 잡으며' 다투다가도 마감 뒤 술자리에서 앙금을 털어내던 시끌벅적한 과거 뉴스룸을 떠올리며, "그런 격렬한 토론이 '좋은 기사'를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다"(32년차 방송기자)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들에게 지금의 뉴스룸은 너무나 조용하다. 후배들끼리 단톡방은 활발한데 어떤 이야기나 평가가 도는지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낯설고 두렵다. 후배에게 하고 싶고, 해야 할 말을 못 한다고 느낀다. 반면 후배 세대는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텔레그램이나 카톡으로 바뀌었을 뿐 기사 토론은 여전히 하고 있다고 말한다. '좋은 기사'를 위해 멱살을 잡거나 모욕을 주면서까지 몰아붙이던 과거 방식은 요즘으로 치면 "직장 갑질"이다. 일에 필요한 '만큼' 소통을 하면 되지, 그 이상의 대화를 할 필요성은 별로 못 느낀다. 인사평가부터 기사 선택까지 모든 권한은 선

배 세대가 갖는다. 대화하자고 해놓고 결국 자신들이 원래 생각해놓은 걸 크게 바꾸는 경우도 드물다. 그런데 후배들 뭐가 두렵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실제 과거의 뉴스룸이 과도한 '인간관계'를 요구했던 건지 모른다. 다만 후배 세대 역시 자신들만의 단톡방에서 나누는 대화나 품평이 정확한 팩트인지, 과장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선배 세대 중엔 요즘 기자들이 파이팅이 떨어진다고 느끼거나 권력 앞에서 끈질기게 묻지도, 차별성 있는 기사도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하루에 몇 개씩 기사를 쓰는 게 '기본값'이 된 환경에서 매번 차별적이고 맥락 있는 기사를 쓰기에 후배들은 "너무 바쁘다." 개별 매체 영향력이 떨어지며 기자들이 핵심 취재원에 접근하는 기회는 더욱 줄었고, 공들여 쓴 기사보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베껴 쓴 기사가 더 읽힌다. 기자들이 종종 신상털기까지 당하는 환경도 취재를 위축시킨다. 이런 구조에 대한 고려와 변화 없이 '파이팅'을 강조하는 것은 설사 맞는 측면이 있더라도 공허할 뿐이다.

'기자관' 역시 간극은 상당하다. 후배 세대가 가끔 쓰는 "기자도 회사원"이란 표현은 논쟁적이다. 기자를 '돈벌이'로만 보는 것 아니냐, 공익과 회사의 이익이 부딪칠 때 회사에 충성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선배 세대는 우려한다. 후배 세대도 자조감이 깔린 패배주의적 표현이라고 인정한다. 다만 그런 의미만이 전부는 아니다. 한 4년차 신문기자는 언론인들의 정계 직행을 언급하며 "기자가 특별한 직업은 맞다. 그런데 그 특별함에 도취한 과한 자부심·자의식 과잉이 세상을 망치는 경우도 많다. 과거 억압적 시대엔 지사형 언론인이 필요했지만, 대기업이든 김밥가게든 모든 일에 직업윤리가 있듯 기자도 언론인으로서 직업윤리를 가지면 되지 않나. 일부러 '회사원' 표현을 고집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다른 6년차 방송기자도 "선배들은 후배들이 역사의식도 없고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한다고 여긴다. 반면 후배들은 선배들을 정파적이라고 보는 인식이 많다. 지사적 언론보다 지금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기자정신이 사라졌다'는 식의

인식은 반쪽의 진실만 보고 있는 건지 모른다.

한편으로 '기자도 회사원'이란 감각은 '개인보다 조직이 앞섰던' 언론사의 전통적 문화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며 갈등적 요소가 되고 있다. 과거엔 청춘을 '갈아넣으며' 소속사 보도에 기여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그렇게 인정받아 데스크나 간부가 되는 게 보상이었다. 하지만 후배 세대에겐 그런 보상이 효능감을 주지 못한다. 막연한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퍼포먼스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보상, 휴식 보장이 이들에겐 상식이다. 언론사가 '평생직장'이던 과거엔 현재 부서가 불만스러워도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나중에 보면 다 도움이 된다"는 선배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반면 '대이직의 시대'라는 지금은 자신이 성과를 잘 낼 수 있고, 그런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받는 게 훨씬 중요하다. 때때로 후배들이 의무보다 권리를 앞세운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과거 방식이 더는 통용되기 힘든 건 분명하다.

이런 세대갈등이 실제 논조나 보도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구체적 데이터는 없지만 경험적으로는 적잖은 이들이 그렇다고 느낀다. "요즘 세대는 권력감시 보도나 좀 더 큰 구조적 이슈보다 젠더 등 정체성 정치, 기후위기 같은 이슈에만 관심 있는 것 같다"(언론노조 토론회에 나온 30년차 신문기자)는 말은 언론사 성향을 막론하고 자주 나오는 레퍼토리다. 이에 대해 한 4년차 통신기자는 "우린 민주화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닌 세대다. 운동의 가치를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페미니즘이나 에코 이슈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다루는 이슈"라고 말했다. 최근 늘어난 젠더, 기후위기 같은 이슈 보도는 다양화한 사회의 관심에 부응하는 면도 있지만, 기자들의 구성 변화와도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종합뉴스를 다루는 언론사의 경우 둘 다 잘하는 게 '정답'이겠지만 뉴스룸이 투입할 수 있는 자원과 시간은 한정돼 있기에 이를 둘러싼 긴장감은 계속 커질 것이다.

간부 대다수가 고연차 남성 중심이고 저연차는 여성이 급증한 뉴스룸의 인적 구조는 세대갈등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구성원 다양성에서 세대·젠더와 함께 인종이나 성 정체성 등 역시 중요한 측면인 서구 뉴스

룸과 비교해 한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뭐라 해도 여성 비중의 증가다. (사실 젊은 세대 비중은 수습공채가 축소되고 저연차 이직과 정년연장 등으로 과거보다 줄면 줄었지 늘진 않았을 것이다) 최근 한겨레가 뉴스룸의 다양성 파악을 위해 기자직군 데이터를 뽑아본 적 있는데, 2030 연령대에선 여성이 70%에 가까운 반면 40대는 40%대, 50대는 16%대였다. 직급별로 보면 팀장 이상 간부 중 여성 비중은 29% 정도였고, 평기자에선 42%대였다. 그나마 여성 데스크가 많은 편이라는 한겨레가 이 정도니 다른 언론사들의 격차는 더 클 것이다. 이런 4050 남성 중심 조직 구조가 후배 세대의 성평등 인식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모색은 시작됐지만…

서구 미디어들이 조직 내 다양성이 뉴스룸의 경쟁력이라 보고 의식적으로 늘리는 노력을 하는 데 비해 한국 언론사들의 구성원 변화는 그저 '주어진 상황'일 뿐이라는 점도 대응의 방향을 다르게 하고 있다. 밀레니얼세대 독자층에 가닿는 게 시급한 과제라 선언한 뉴욕타임스는 해마다 다양성 보고서를 내는 한편 지난해엔 '액션 플랜'을 내놨다. 빌트로 유명한 독일의 악셀 슈프링어는 관리자 여성비율을 2026년까지 40%로 늘리기 위해 ▶리더들의 포용적 태도 진흥과 다양성 증가 등 리더십 활성화 ▶목표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직원들을 참여시키는 것 ▶직원을 위해 공평하고 투명한 경력(career)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 5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 언론사 중 뉴스룸 내 세대나 젠더 다양성이 보도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여기는 곳이 얼마나 될까?

구조적으론 포털로 대표되는 디지털 환경 변화의 돌파구가 좀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클릭을 향한 기사 경쟁을 벌이면서도 의미 있는 기사를 찾아 뛰는 후배 세대에겐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선배들은 뭐 하지?'가 기본 정서가 된 것 같다. 8년차 방송기자는 "바뀐 환경에서 선배

들이 어떻게 업무량을 배분할 것인지, 후배 세대들은 어떤 유인을 주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논의가 계속 태도·문화로만 간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끝이 안 나고 결국 감정싸움으로 번진다"고 말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선배 정명석 변호사가 후배들의 좌충우돌은 따끔하게 지적하되 솔루션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사람들은 환호했다. 이른바 MZ세대가 지적과 비판을 싫어한다는 건 편견이며, 이들은 오히려 정확한 비판을 하되 뭐라도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주는 관계에서 효능감을 느낀다고 한다. 지금 우리 뉴스룸이 '정명석 변호사'를 키우는 구조일까.

몇 년 새 주니어보드 같은 제도를 도입하거나 젠더나 소통데스크를 만드는 곳이 늘어나는 건 반가운 현상이다. 다만 소통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건 환상이다. 아무리 소통해도 선후배 세대의 '차이'를 없앨 순 없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상호 존중하며 이를 '경쟁력'으로 만들 수 있는 뉴스룸 구조와 언론 환경을 고민할 때다. 지금의 세대갈등은 시스템의 변화와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저널